

## 주님의 상 집회에서 찬송가를 사용함

성경: 마 26:30, 행 16:25, 고전 14:26, 엡 5:19, 골 3:16

- I. 주님의 상 집회는 지방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이다. 주님의 상 집회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님의 누림을 위하여 주님에 대한 기념을 그 중심으로 갖는다.
  - A. 이 집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즉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읽거나 영감에 의한 말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 B. 이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주님의 인격과 일, 주님의 사랑과 미덕,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과 고난, 혹은 하늘에서의 영광과 존귀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거나 깨달을 수 있다.
  - C. 주님의 상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1.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나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에 관한 찬송가는 주님의 상 집회에 적합하지 않다.
    2.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도 주님의 상 집회에 적합하지 않다.
  - D. 지방 교회의 주님의 상 집회는 반드시 합당하며 적절해야 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집회는 그 교회가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부적절한 집회는 그 교회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강한 집회는 지방 교회가 주님의 강력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표시이다.
- II. 우리의 집회를 부요하고 강하고 살아나고 신선하고 높게 하려면 우리는 찬송가들을 사용해야 한다 — 고전 14:26, 엡 5:19, 골 3:16.
- III.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찬송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 A. 첫째, 찬송가의 가사는 반드시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진리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류로 이끌며 합당하지 않은 느낌으로 이끈다.
  - B. 둘째, 찬송은 그 형식과 구조에 있어서 시적이어야 한다. 시편에 있는 모든 노래들은 시(詩)이다.
  - C. 셋째, 찬송은 영적 충격력을 주어야 한다. 찬송가는 반드시 우리를 그 가사 너머에 있는 영적 실재로 이끌며 그 찬송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만지도록 해야 한다(예, 시편 51 편).
- IV. 주님의 상 집회에서 찬송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 찬송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 A. 찬송은 시이며 시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B. 노래는 사람의 가장 섬세한 느낌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더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더욱더 노래하는 느낌을 갖고 행하도록 이끌기를 원하신다.
  - C. 시와 노래는 우리의 느낌의 표현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비결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
- V. 우리는 반드시 찬송을 선택하는 것의 원칙을 배워야 한다.
  - A. 찬송을 선택하는 원칙은 우리가 그 집회에서 갖는 느낌에 따라 찬송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B. 우리가 집회 안에 있는 강한 느낌에 따른 특정한 분위기를 만질 때 우리는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찬송을 찬송가에서 선택해야 한다.
  - C.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느낌에서 나와서 그 집회 안에 있는 느낌과 분위기를 만져야 하며 성령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 D.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다만 장로들과 집사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선택하는 것을 배울 책임이 있다.

**VI. 찬송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찬송의 여러 범주들에 관해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 내용과 초점과 느낌과 맛과 곡조도 알아야 한다.**

- A. 먼저 우리는 반드시 찬송가에 있는 여러 범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찬송가에 있는 목차는 모든 찬송을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B. 그 다음에 우리는 찬송가의 내용을 읽고 심지어 연구해야 한다.
- C. 우리는 또한 각 찬송의 중심 사상과 초점을 찾아내야 한다.
- D.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송의 느낌과 맛을 알아야 한다. 각 찬송은 그 자체의 느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자체의 맛을 가지고 있다.
  - 1. 우리는 찬송의 표준을 관심해야 한다. 우리는 찬송을 느낌으로써 그 표준을 알 수 있다. 찬송의 느낌은 그 찬송 안에 있는 사상에 기초하며 또한 그 맛을 가리킨다.
  - 2. 찬송의 표준에 대한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a.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 찬송가(영한동번) 19 장(견고함, 온전함, 완전함이 없음), 18 장(진리가 총만함).
    - b.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에 관한 찬송— 찬송가 70 장(생명과 진리와 체험과 계시에 있어서 낮음), 찬송가 152 장(표준이 가장 높음)
- E. 그 외에도 우리는 찬송가의 곡조를 알아야 한다. 많은 좋은 찬송들이 곡조를 잘못 부름으로써 망쳐질 수 있다.

**VII. 주님의 상 집회에서 주님을 기념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일이 우리가 기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A.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인격, 즉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인격의 두 방면을 보아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창조물이시다— 찬송가 56-64 장.
- B. 둘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낮추심과 그분의 굴욕과 그분의 인간 미덕들을 포함한다— 찬송가 86-90 장.
- C. 셋째,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해야 한다. 이것은 구속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찬송가 91-116 장.
- D. 넷째, 우리는 주님의 승천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포함한 주님의 높여지심을 기념해야 한다— 찬송가 117-144 장,

**VIII. 매번 주님의 상 집회에서 다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A. 우리가 집회의 분위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B. 주님의 이름, 주님의 죽음, 주님이 자신을 낮추심, 이 땅에서 주님의 생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승천과 영광스럽게 되심, 주님의 광채, 주님의 달콤함 등이 초점이 될 수도 있다.
- C. 어떤 것이 초점이든지 관계없이, 찬송을 선택하는 것과 찬양과 교통하는 것은 이 초점에 집중해야 한다.

**IX. 우리는 또한 그 찬송가를 어떻게 적절한 시간에 사용하는지도 배워야 한다.**

- A. 어떤 찬송들은 집회의 특정한 시간에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찬송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합당한 시간에 사용해야 한다.
- B. 어떤 찬송들은 집회의 특정한 부분을 시작하기에 좋을 수 있다. 집회가 시작된 이후의 부분에서는 시작된 그 부분을 강화하고 부요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찬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같은 부분을 더 지속시키고 높이기 위한 찬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 C. 한 사람이 시작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작된 것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부요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팀워크(협력)가 필요하다.

D. 적절한 시간에 찬송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집회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따라야 한다.

**X. 우리는 찬송가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

A. 우리는 다만 기계적인 방식으로 찬송가에서 단지 외치고 선포하고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B. 우리는 찬송에 속한 사상을 가지고 몇 가지 용어나 구절은 재구성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C. 우리의 찬양은 다만 찬송을 읽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찬송가를 소화시킨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찬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XI.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부분에서 찬송을 선택할 때 고려할 것이 있다.**

A. 아버지를 경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만 전환을 해야 한다. 주님의 상 집회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부분은 주님을 기념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야 한다.

B. 우리는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인격에 따른 찬송을 선택해야 한다(찬송가 10-13 장 참조)

C. 우리는 또한 아버지의 미덕들, 즉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친절하심,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위대하심,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영광에 따른 찬송을 선택해야 한다(찬송가 14-31 장 참조)

**XII.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핵심 중점이 생명이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A. 생명은 그 영이며, 그 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재이다 - 롬 8:2, 고후 3:17.

B. 우리가 성도들이 생명의 길 위에 이르도록 돕는다면 우리의 실행에 속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생명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C.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완전히 규제되는 상황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죽음에 속한 상황이 될 수 있다.

D. 니 형제님은 생명과 함께 진리를 실행하도록 인도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규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E.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충분히 자란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